

'4년 만에 재개' 담양 대나무축제 63만명 구름 인파

야간 경관조명·대나무 정취 느낄 수 있는 포토존 '인기' 대나무 뗏목타기 등 다채로운 대나무 관련 체험·이벤트

'가자 대숲속으로'를 주제로 4년 만에 열린 전남 담양 대나무축제(2023 New Bamboo Festival)가 60만 명이 넘는 구름 인파가 물리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가뭄 속 연일 이어지는 단비로 방문객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음에도 닷새 동안 63만 명이 행사장 곳곳을 채워 곳곳은 날씨도 무척 좋았다.

지난 2일 KBS 전국노래자랑을 시작으로 5월 3일부터 7일까지 펼쳐진 담양대나무축제는 축제장 곳곳을 채운 야간 경관조명과 대나무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포토존으로 MZ세대와 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대나무 어린이놀이터와 대나무로 만든 카누와 뗏목타기, 타겟을 모두 맞추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대나무 새총쏘기 등 다채로운 대나무 관련 체험과 이벤트로 가족 단위 관광객

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개막 첫날 담빛음악당에서 진행된 MBC가요베스트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이 추성경기장을 가득 채워 장관을 이뤘고,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담빛 청소년 기 페스티벌 참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담양을 찾아 열띤 경연을 펼쳤다.

농특산물 판매부스와 라이브커머스 방송, 택배비 지원서비스도 관광객 편의와 지역민의 실질적 소득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우중에도 불구하고, 축제장 곳곳에서 대나무 보부상의 익살스런 거리 퍼포먼스와 운수대통 대박터뜨리기 이벤트를 진행해 어린이 방문객의 인기를 끌었다.

이병노 군수는 8일 "오랜 가뭄을 해소해 주는 단비로 축제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



담양 대나무축제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7일 대나무로 만든 뗏목을 타고 주변 경관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담양군 제공)

과 관광객의 뜨거운 성원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했다"며 "내년에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프

그램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농작업은 안전이 최우선" 장성군 귀농학교, 농기계 안전교육·실습교육 실시

장성군 귀농학교가 농업기초과정으로 농작업 안전교육, 농기계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은 신규 귀농인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귀농 준비 마음가짐부터 본격적인 창업에 이르기까지 초보 농업인을 위한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과정은 농작업 안전 강의로 시작했다. 농업인회관 강의실에서 기초지식을 습득한 교육생들은 야외 운전실습장으로 이동해 실습에 참가했다.

기기를 직접 작동하면서 농기계 기종별 조작법과 활용법, 관리법 등을 익힐 수 있어 초보 농업인들에게 유용했다. 교육에 참석한 박모 씨는 "농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특히 농기계 안전 사용법이 유익했다"고 전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 정착을 구제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구례군, 올해 7월 말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구례군은 올해 7월 말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실태를 조사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구례군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구례군에 필요한 통계 중심의 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조사를 통해 흡연, 음주 등 주민들의 건강 행태와 이환, 의료 이용 등을 파악한다. 조사 근거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전국 시도와 258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구례군은 표본 가구로 선정된 87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원이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으로 145문항을 조사한다.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태블릿PC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연말에 공표하며,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특성에 맞는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향상과 질병으로 인한 비용 절감 등 건강한 구례군을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주민께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보건의료원(061-780-2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정부합동평가 역대 최초 종합 1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재정 인센티브 1억 7500만원 확보

화순군은 2023년 정부합동평가(22년 실적)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역대 최초로 종합 1위를 달성하고,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내 최고의 행정력을 입증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이다.

군은 종합 1위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총 1억7,5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준 덕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면서 "군민이 만족하는 화순군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공무원노조, '협력-상생' 노사화합 워크숍

여수·순천서 1박2일 일정 노사 소통·교류 시간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공직사회 발전과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나주시는 최근 공무원노동조합과 여수, 순천에서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사 화합 워크숍'을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노사 임원과 간부, 대의원을 중심으로 노조 공무원 40여명이 참여했다.

노사가 함께하는 단체활동, 노사관계 이해 교육, 공감 토크 등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임진광 공무원노조 비대위원장은 "워크숍을 계기로 노사 화합과 소통 증진, 선진 노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노조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워크숍 첫 날 현장을 찾아 시정의 파트너로서 공직사회 발전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 시장은 "이번 워크숍이 협력적 노사 관계 증진에 마중물로서 시민의 행복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정렬하고 신뢰받는 행정, 살기 좋고 앞서가는 행복나주를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합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곡성군, 직장 내 임신부 소통의 시간 가져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

곡성군이 지난 2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직장 내 임신부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임신부 직원을 위한 생활용품 직접 전달하며 직원들의 건강한 출산을 기원했다. 또한 임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통의 시간을 통해 임신부 직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에 도움을 주고, 임신부가 배려받는 문화와 가족 친화적인 출산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임신한 직원들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신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가족 사랑의 날 행사 등을 운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곡성=양해영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